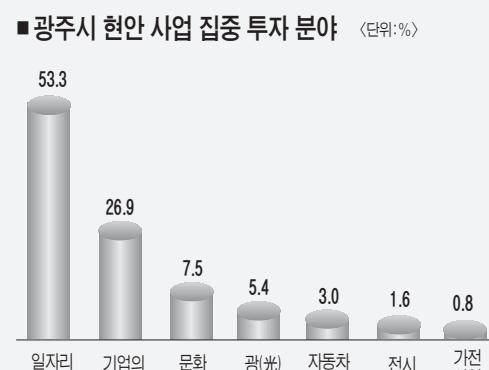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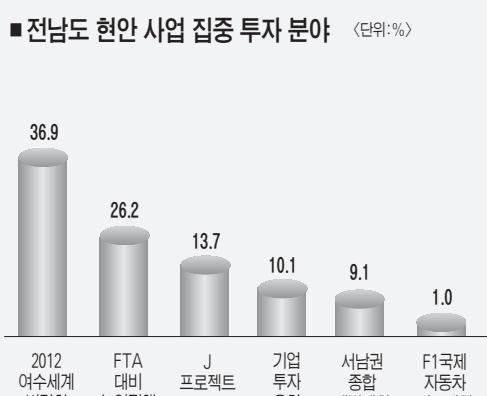
광주·전남 시도민 의식조사



■ 광주시 현안 사업 집중 투자 분야 <단위:%>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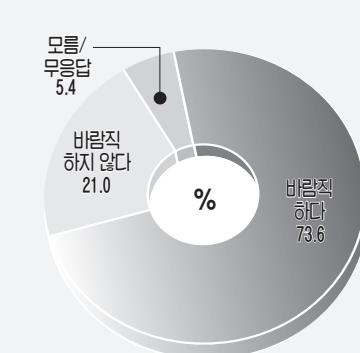
■ 전남도 현안 사업 집중 투자 분야 <단위:%>



■ 미국산 쇠고기 구입 의향 <단위:%>

	많이 있다	어느정도 있다	전혀 없다	모름/무응답
광주/전남	14.6	31.0	21.4	32.0
광주	6.5	35.6	19.9	27.0
전남	13.3	27.9	22.4	35.4

■ 공무원 퇴출에 대한 견해



시·도민 절반이상 “난 중하위계층, 형편 어렵다”

<6면에서 계속>

■ 광주·전남 현안 사업

광주시가 추진 중인 사업들 가운데 집중 투자해야 할 분야를 묻는 질문에 광주시민의 53.3%가 ‘일자리 창출’이라고 답했으며, 그 다음으로 ‘기업의 투자 유치’(26.9%), ‘문화 수도 건설’(7.5%), ‘광산업 육성’(5.4%), ‘자동차 산업’(3.0%), ‘전시컨벤션 산업’(1.6%), ‘기전산업’(0.8%) 등의 순이었다.

전남도가 추진 중인 사업 가운데 집중 투자해야 할 분야에 대해 물어본 결과, 도민들의 36.9%가 ‘2012여수 세계박람회’라고 응답했으며 다음으로 ‘FTA대비 농업정책’(26.2%)과 ‘J프로젝트’(13.7%), ‘기업투자 유치’(10.1%), ‘서남권 종합개발계획’(9.1%), ‘F1국제자동차경주대회’(1.0%) 등을 꼽았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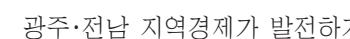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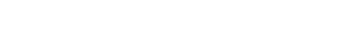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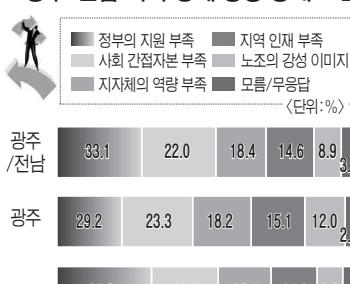
농업지역임에도 불구하고 ‘FTA대비 농업정책’ 보다는 ‘2012여수 세계박람회’를 가장 중요한 사업으로 꼽은 것은 최근 들어 정부 차원에서 여수세계박람회 유치에 적극 나서면서 지역민들의 기대가 지난 2002년 박람회 유치 신청 때 보다 높아진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.

도민들은 여수세계박람회 유치를 가장 중요한 지역 현안으로 꼽았으나 열린우리당 지지자와 민주노동당 지지자들은 다른 당 지지자들과 달리 1순위로 ‘FTA대비 농업정책’을, 2순위로 여수세계박람회를 택했다.

기업 투자·세계박람회 유치 현안사업 꼽아

지역경제 저성장 요인은 “정부 지원 부족 탓”

■ 광주·전남 지역 경제 성장 방해 요인



■ 지역경제성장 방해요인

■ 광주시내버스 준공영제

■ 광주시내버스 준공영제